

대신 기출

국어 금성 (1학기)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내신 기출 국어 금성, 1학기 편>>

◆차례◆

1.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

(1) 서정 갈래

*첫사랑_고재종-----1쪽 (42문제)

*이화에 월백하고_이조년 / 귀뚜라미_나희덕-----12쪽 (28문제)

(2) 서사.극 갈래

*봄.봄_김유정-----21쪽 (36문제)

(3) 교술 갈래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_박지원-----39쪽 (30문제)

*지갑-----54쪽 (4문제)

*눈물은 왜 짠가-----56쪽 (5문제)

2. 생각 다듬기, 표현 가다듬기

(1) 담화 상황에서의 점검과 조정-----57쪽 (5문제)

(2) 읽기와 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61쪽 (11문제)

3. 올바른 발음과 표기

(1) 음운의 변동-----69쪽 (61문제)

(2) 한글 맞춤법-----86쪽 (65문제)

4.성찰하는 눈

(2) 삶의 성찰

*엇박자 D-----104쪽 (8문제)

*동승-----108쪽 (6문제)

5. 글, 사회적 상호 작용의 통로

*황상-----111쪽 (11문제)

*네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 보라-----116쪽 (8문제)

▶전체 정답-----120쪽

▶해설-----1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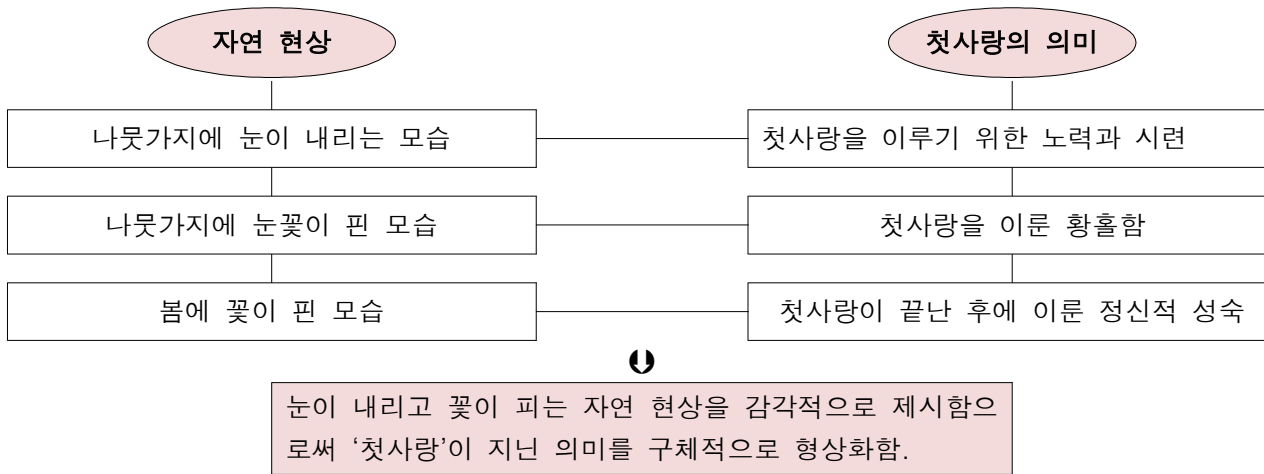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아이디)

첫사랑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낭만적, 시각적, 비유적, 역설적
어조	대상에 대한 경탄과 예찬
제재	한겨울 나뭇가지에 쌓인 눈
주제	도전과 헌신으로 피워 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함. •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표현함.

1. 이 시의 주된 형상화 방법



2. 이 시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

은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관념인 '눈꽃'을 '바람 한 자락 불면 휘 날아갈 사랑',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에 비유하여 표현함. • 원관념인 '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 비유하여 표현함.
직유법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순수한 노력을 '햇숨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여 폭신하고 따스한 눈의 이미지를 형상화함.
의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는 모습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표현함. •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모습을 두드려 보는 것, 춤추는 것, 미끄러지는 것으로 표현함.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댄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종, 「첫사랑」

숙지고등학교 (경기)

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숙지고등학교 (경기)

2. <보기1>을 읽고 <보기2>에서 위 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시인은 시어, 화자, 운율, 심상 등의 구성요소와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함축적 의미를 담아 낱 시어를 선택하고, 그 시어를 배열하여 운율을 만들어 낸다. 또한 비유나 상징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심상을 구체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 이렇게 각 구성요소들과 작품의 주제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완성된 한 편의 시는 독자에게 미적 감동을 전해 준다.

<보기2>

㉠ 심상	위 시에 드러난 심상을 말해 보고, 이와 관련된 시구를 찾아보자.
㉡ 운율	위 시에서 운율이 두드러진 부분을 찾고, 그 효과를 말해 보자.
㉢ 표현법	시구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
↓	
㉣ 주제와의 관련성	위 시의 주제를 파악해 보고, 시의 구성 요소가 주제의 형상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 ① ㉠ :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에서 눈이 내리는 소리가 표현되고 있어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 ② ㉡ :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이라는 유사한 시어, '~겠지'라는 종결 어미의 반복이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③ ㉢ : '햇솜 같은 마음'에서 봄을 기다리는 화자의 순수한 마음을 '햇솜'에 비유하여 의미를 강조했다.
- ④ ㉣ : '봄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첫사랑을 겪고 난 후에 도달한 정신적 성숙의 의미를 드러냈다.
- ⑤ ㉤ : 위 시의 구성 요소가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 낸 사랑의 결실'이라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숙지고등학교 (경기)

3. 위 시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꽃을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시련을 의미한다.
- ② ㉡ : 봄에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 눈꽃이 나뭇가지에 오래도록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④ ㉣ : 눈이 녹은 자리에 피워낸 봄꽃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 ⑤ ㉤ :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 위로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전고등학교 (경기)

4. 위 시의 제목인 '첫사랑'과 관련지어 ㉠의 함축적 의미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종, 「첫사랑」

신도고등학교 (부산)

5. 이 작품을 서정 갈래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인의 대리인인 화자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말을 반복하여 운율감이 느끼고 있다.
- ③ 작가가 자신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비유와 상징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추상적인 대상을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신도고등학교 (부산)

6. ㉠~㉤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노력
- ② ㉡ : 첫사랑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암시
- ③ ㉢ :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순수한 마음
- ④ ㉣ :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
- ⑤ ㉤ : 첫사랑의 아픔

자양고등학교 (서울)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시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감각적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의문문 형식을 사용하여 절제된 감정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자양고등학교 (서울)

8. 윗글을 읽고 느낀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수많은 인내와 시련을 통해서 정신적 성숙을 얻을 수 있어.
- ② 불가능한 일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어.
- ③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통해 공동의 성취를 이룰 수 있어.
- ④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워.
- 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어.

1.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
(1) 시인성명

작품 정리

이화에

월백하고

갈래 시조, 정형시

제재 일지 춘심(一枝春心)

어조 봄 밤의 자연과 대조를 이루는 애상적 어조

주제 봄밤의 애상적인 정서

특징

- 시각, 청각 등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형상화함.
- 아름다운 자연에 대비시켜 잠 못 드는 화자의 심정을 부각시킴.
- 밝은 달빛을 발는 '이화'에서 환기된 화자의 정서가 '자규'를 통해 심화됨.

1.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
(1) 시인성명

시상의 전개과정

이화에 월백하고

- 초장** 봄 밤의 배꽃과 달빛.
- 중장** 봄 밤의 자규의 울음소리.
- 종장** 잠 못드는 화자의 정서.

1.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
(1) 시인성명

핵심 강의 이화에 월백하고

감각적 정서의 이동



1.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
(1) 시인상대

작품 해설

귀뚜라미

- 이 시는 귀뚜라미를 시적화자로 하여 자신의 노래가 타인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고 있다.
- 청각, 촉각, 시각적 심상을 두루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
(1) 시인상대

작품 정리

귀뚜라미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성찰적, 대조적, 청각적
어조	대상을 향한 감탄과 예찬의 어조
주제	자신의 노래로 세상과 소통할 날에 대한 기다림과 바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촉각,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 함.- 귀뚜라미를 의인화한 화자를 내세워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1.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
(1) 시인상대

시상의 전개과정

귀뚜라미

- 1연 | 아직 노래가 아닌 '내 울음'.
- 2연 | 녹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
- 3연 |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

1.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
(1) 시정남파

핵심 강의 귀뚜라미

📖 화자의 심리 변화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	↓	↓
기대	의문	바람

1.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
(1) 시정남파

핵심 강의 귀뚜라미

📖 대립적 시어

높은 가지	→	차가운 바닥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매미소리	→	토하는 울음 발길에 눌러 우는 내 울음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
지금	→	맑은 가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 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조년

(나)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 때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견히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밭길에 놀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나희덕, '귀뚜라미'

동탄국제고등학교 (경기)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2개 고르시오?

- ①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먼저 경치를 묘사하고 뒤에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3음보의 울격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김포고등학교 (경기)

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상의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한다.
- ②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한다.
- ③ 계절의 순환을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암시한다.
- ④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의태어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다.

김포고등학교 (경기)

3.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뚜라미는 시적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② ㉠, ㉡, ㉢은 매미와 관련된 소재로 ㉣과 대조된다.
- ③ ㉤은 청각의 촉각화를 활용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귀뚜라미를 억압하는 매미의 행위로 귀뚜라미의 자유로운 소통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 ⑤ ㉧은 의문형 진술을 통해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누원고등학교 (서울)

4. (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선경 후정의 구조로 되어 있다.
- ② 다양한 자연물의 시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감각적인 심상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 ④ 형태에 제약이 없어 누구나 쉽게 짓는 갈래이다.
- ⑤ 시적 화자의 정서는 '일지 춘심'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누원고등학교 (서울)

5. (가)의 시적 화자가 쓴 일기를 쓴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흰 배꽃이 핀 봄밥이다. ② 달이 꽃을 비추고 은하수를 보니 어느덧 자정 무렵이다. ③ 자규가 지저귀는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들으니 평화롭기 그지없다. ④ 나는 지나치게 다정하고 감성적인 성격이다. ⑤ 아름다운 봄의 정서에 취해 오늘 잠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

누원고등학교 (서울)

6. (가)의 운율 형성 방법 (나)와 비교해서 쓰시오.

봄봄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현대 소설
성격	, 해학적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	• 시간적 배경 -1930년대(일제 강점기) • 공간적 배경 -강원도 농촌
제재	성례(혼인) 문제
주제	교활한 장인과 어수룩한 데릴사위 사이의 해학적 갈등
특징	• 과거와 현재의 순서가 뒤바뀐 역순행적(역전적) 구성을 보임. • 토속어, 방언,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느낌과 더불어 현장감을 줌. • 상황을 과장되게 설정하여 웃음을 유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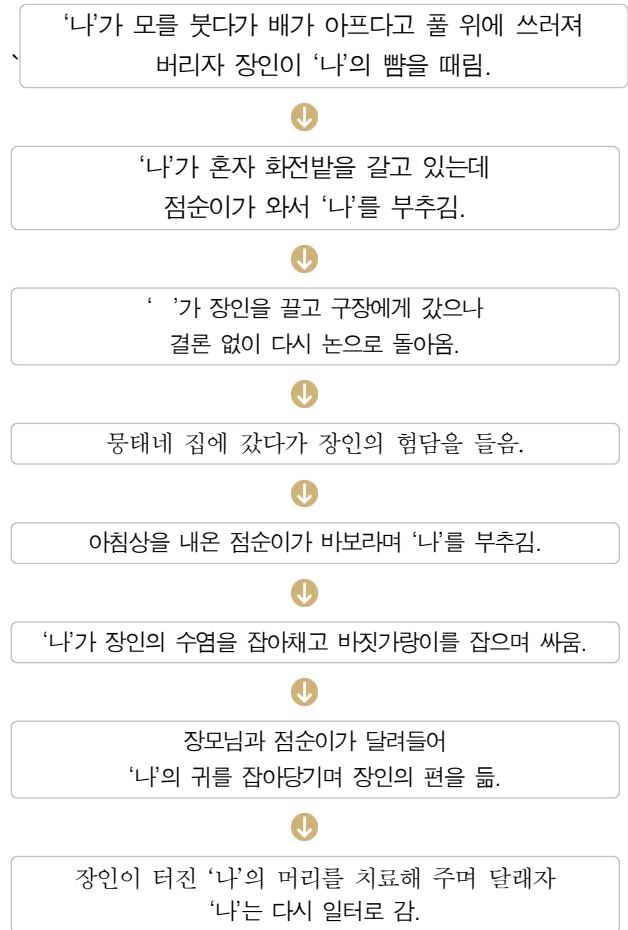
• 구성(구성: 절정 ① 결말 → 절정 ②)

해당 부분	중심 내용
발단	성례(결혼) 문제를 둘러싼 '나'와 장인 간의 갈등
전개	'나'와 장인 간 갈등의 심화
절정 ①	점순이의 총동질로 장인과 해학적인 활극을 벌이는 '나'
결말	싸움이 끝나고 '나'와 장인 간에 화해가 이루어짐.(‘절정’ 단계에 삽입됨.)
절정 ②	'나'는 장인을 편드는 점순의 태도에 얼이 빠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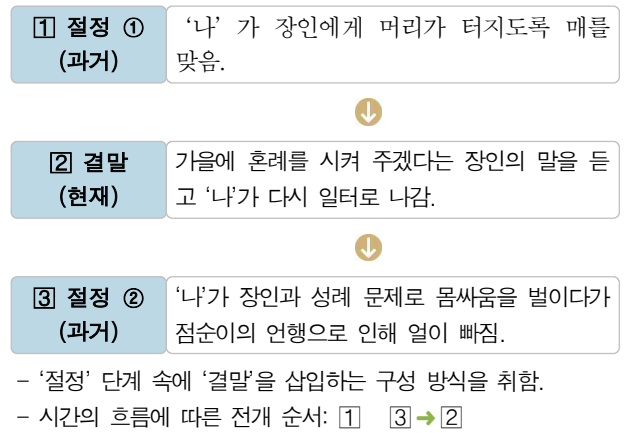
• 등장인물

'나'	점순과 혼인을 시켜 주겠다는 장인의 약속을 믿고 대가 없이 일을 해 주고 있는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
장인	혼인을 미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위선적이고) 교활한 인물로, 마름의 지위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품위와 교양이 없음.
점순	혼인이 하고 싶어 '나'를 부추겨 아버지와 맞서게 하나, 정작 싸움이 벌어지자 아버지(장인) 편을 들어 '나'를 당황시킴.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



• '절정~결말' 단계의 사건 전개



• 제목의 의미

봄·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절적 배경 '봄'이라는 계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는 남녀의 청춘을 상징함. '봄'의 반복됨을 고려할 때: '봄'의 순환 봄마다 반복되는 '나'와 장인의 갈등, 헤어날
------------	-------------------------------------------------------------------------------------------------------------------------------------------------------------------------------------

• 갈등의 양상과 그 원인

'나'	장인
점순이와 성례를 울리고 자 함.	'나'의 성례를 미루고자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면적 이유: 점순이의 작은 키 근본적 이유: '나'를 더 부러 먹으려는 	

• 해학적 요소

요소	예시
토속어, 방언, 비속어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속어, 방언: 짜증(짜장), 안죽(아직), 불배기(불박이), 승겁다(싱겁다), 움물길(우물길), 가생이(가장자리), 우짚근하다, 씨러지다, 쟁그럽다(고소하다) 등 비속어: 자식, 대가리, 쌍년, 꼴(형편이나 처지), '나'(창자) 등
벨(벨창)의 어수룩한 말과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7개월간 대가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곧 점순이와 성례를 울릴 것이라고 믿음. 장인과 싸운 후에 장인이 잘해 주자 눈물까지 흘리며 다시 일하러 감.
'나'와 장인 간의 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가 점순이가 말한 대로 장인의 수염을 잡아챈. 장인이 '나'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잡고 매달리다가 잠시 후 '나'가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잡고 매달림.
과장된 상황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가 점순이의 데릴사위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세 번째 인물임. '나'가 별다른 불평 없이 3년 7개월간 대가 없는 노동을 함.
인물의 희화화된 외모와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순이는 '불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매를 지님. '나'가 보기에 '빙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애를 낳음.
남녀 역할의 전도	'나'(남)는 성례에 대해 주변 인물들에게 말기는 등 소극적인 데 반해, 점순이(여)는 성례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를 충동질함.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싸리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 주고 있었다. 서울엘 좀 갔다 오드니 사람은 점잔해야 한다구 웃침이(얼른 보면 집웅 우에 앉은 제비 꼬랑지 같다.) 양쪽으로 뽀죽이 빠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담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 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다 말구 그래?”

하드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 번 훅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춤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춤에…….”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팬스리 골을 널라구 든다. 뱀두 뱀이라야 좋나구,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말조짐을 받아 오면서 난 그것두 자꾸 잊는다. 당장두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꼭 밟고 결눈질을 즐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드니 펍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가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 둔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 씨! 얼른 성렐 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루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샷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렐구 뭐구 기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썩룩해서 입맛만 짹짹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두 그래!”

“그래, 거진 사 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킨 은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구 사경내슈…….”

“글쎄, 이 자식이!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떼냐?”

㉠“빙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엘 낳지유?(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꺾배기 하나가 작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꺾꺾 웃드니(그러나 암만해두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릴라구 팔꿈치로 옆 갈 비껴를 펍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두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

[A] 하고 허리를 굽으리며 어깨로 그 궁둥이를 확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쭐근하고 싸리문께로 씨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참아 못 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펍 쟁그러웠다.

(나)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루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구 꺾속말로 수군수군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구 아래와 같이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몽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 마지기 연어 부치니까 그래 피었다구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

“자네 말두 하기가 옳지. 암,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허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루 그것두 징역을 가거든!(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삼포 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구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두 징역을

[B] 가는 이뻐데 남의 농사를 버려 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사경 받으러 정장 가겠다 했다.) 간대지만, 그러면 팬스리 짚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두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스물하나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일 걸 염려지만, 점순이루 말하면 인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때에는 열 일을 제치고라두 성례를 시켜 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모 밭든 거나 마저 밭게. 군소리 말구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꺾소리 없이 왔다.

(다)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몽태네 집에 마술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었는지 대구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중략)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구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루 훅닥이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님의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데릴사위를 해 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열 살 때부터 열아홉, 즉 십 년 동안에 데릴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 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마는 열네 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담 딸을 데릴사위를 해 올 때까지는 부려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누라고 연팡 바뀐 들였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히도 부려 먹으니까 뺨이 상해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데릴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담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두 참 잘하구,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인제 여섯 살, 적어도 열 살은 돼야 데릴사위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 먹어야 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채리고 장가를 들여 달라구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나는 건으로 ‘영, 영.’ 하며 꺾등으로 들었다. 몽태는 땅을 얻어 부치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르거린다. 그것두 장인님이 저 달라구 할 적에 제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예전에 원님이 쓰던 것이거나, 옆구리에 뽕뽕 좀먹은 걸레)를 선뜻 주었으면 그럴 리도 없었던 걸…….

(라)

㉢실도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춤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었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톱툰이 해 오니까 두 대접이고 네 대접이고 멧대루 먹어도 좋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 말로 지껄이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엇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종알거린다. 탄은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떻게담!”

하니까,

㉣“침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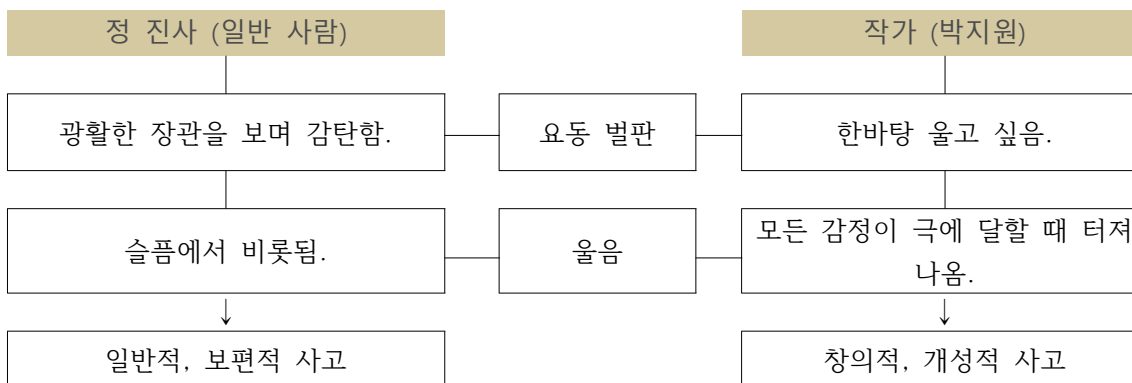
■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기행 수필
성격	비유적, 교훈적, 사색적, 체험적
제재	광활한 요동 별판
주제	광활한 요동 별판을 보며 느끼는 감회
특징	①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작가의 참신한 발상이 돋보임. ② 문답에 의한 구성 방식을 통해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함. ③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시로 대상을 실감 나게 표현함.

■ 작품의 구성

기	글쓴이가 요동 별판을 보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함.	
승	문	정 진사가 글쓴이에게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한 까닭을 물음.
	답	사람은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의 칠정(七情), 즉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고 답함.
전	문	정 진사가 칠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을 받아 울어야 하느냐고 물음.
	답	갓난아이의 울음과 같이 넓은 곳에 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면 된다고 답함.
결	요동 별판의 광활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지는 여정과 백담에 대한 감상을 밝힘.	

■ 대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



■ 비유적 표현의 의미

1-(3)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갓난아이(보조 관념)	글쓴이 (원관념)	의미
어미 태에서 나옴.	좁은 조선에서 나와 광활한 별판을 봄.	폐쇄적인 곳에서 넓은 세상으로 나와 새로운 문물을 접함.
한없이 울어 댐.	통곡할 만함.	새로운 것을 접한 기쁨이 극에 달해 통곡할 만함.

■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

문답의 방식	물음과 대답의 형식을 반복하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함.
참신한 비유와 예시	글쓴이 자신을 갓난아이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갓난아이의 울음을 예로 들어 통곡의 의미를 설명함.
새로운 발상	드넓은 요동 별판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감탄의 대상)을 깨고,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새로운 해석(통곡할 만한 자리)을 제시함.

■ 박지원의 가치관

박지원은 조선의 낙후된 현실과 혼탁한 정치 상황, 양반 사회의 타락상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는 북학론을 통해 청나라의 앞선 문물제도 및 생활양식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으며,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이라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연암에게 요동 별판은 개방적이고 다양한 선진 문물이 있는 공간이자 고루한 인습이 존재하지 않는 해방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월 초8일 갑신일

맑다.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三流河)를 건너 냉정(冷井)에서 조반을 먹었다. 십여 리를 가다가 산기슭 하나를 돌아 나가니 태복(泰卜)이란 놈이 국궁(鞫躬)을 하고는 말 머리로 쫓아와서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백탑(白塔)이 ㉡현신(現身)하였기에 이에 아뢰나이다.”

한다. 태복은 정 진사의 ㉢마두(馬頭)이다.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이 보이지 않기에 말을 급히 몰아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안광(眼光)이 어질어질하더니 홀연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내리락한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했더니 정 진사가,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특 터진 곳을 만나서는 별안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그렇긴 하나, 글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 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七情)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 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 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 만한 걸세.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통곡 소리는 천지간에 우레와 같아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온 소리는 ㉤사리(事理)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 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그리하여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 대지.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져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한나라 때 가의(賈誼)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뎌 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宣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

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니 정 진사는,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나 또한 그대를 좇아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 받아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나는,

“그건 갓난아이에게 물어보시게.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칠정 중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는지? 갓난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꼭 찬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터이니, 슬퍼하거나 화를 낼 이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 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꼭 찬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를 두고,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간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므로,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갓난아이의 본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네.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胎中)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렀던 정을 다 크게 씻어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봄에 한바탕 울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황해도 장연(長淵)의 금모래사장에 가도 한바탕 울 장소가 될 것이네. 지금 요동 들판에 임해서 여기부터 산해관(山海關)까지 일천이백 리가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이, 하늘 끝과 땅끝이 마치 야교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하고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 볼 장소가 아니겠는가?”

한낮에는 매우 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총(高麗叢), 아미장(阿彌庄)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다. 나는 주부 조달동, 변군, 박래원, 정 진사, 겸인(僉人), 이학령과 함께 옛 요동으로 들어갔다. 변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의 열 배쯤 되니 따로 요동 여행기를 써 놓았다. 서문을 나서서 백탑을 구경하니 그 제조의 공교하고 화려하며 웅장함이 가히 요동 별판과 맞먹을 만하다. 따로 백탑에 대해 적은 <백탑기(白塔記)>가 뒤편에 있다.

- 박지원, '통곡할 만한 자리'

계남고등학교 (경기)

1.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태복은 백탑이 안 보인다고 알렸다.

1-(3)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 ② 백담이 있는 곳은 시야가 꼭 막힌 곳이었다.
- ③ 지극한 통곡 소리는 아무 장소에서 나오지 않는다.
- ④ 금강산 비로봉과 황해도 장연은 울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 ⑤ 사람들은 초상집에서 자연스럽게 '아이고'하며 소리 내어 운다.

계남고등학교 (경기)

2. 위 글의 ㉠~㉣의 뜻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눈 앞에 새로운 것을 찾아 냄
- ② ㉡ : 역마(驛馬)에 관한 일을 말해보단 사람
- ③ ㉢ : 눈의 정기
- ④ ㉣ : 일의 이치
- ⑤ ㉤ : 아이를 배고 있는 동안

계남고등학교 (경기)

3. 위 글과 <보기>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은 그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한 하늘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하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의미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그 당시에 하늘은 인간에게 행운과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고, 인간의 개별적 또는 공통적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하늘을 권선징악의 주재자로 보고, 모든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정치적 변천까지도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 지혜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순자의 하늘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엄격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우 새롭게 변모시킨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순자는 하늘을 단지 자연현상으로 보았다. 그가 생각한 하늘은 별, 해와 달, 사계절, 추위와 더위, 바람 등의 모든 자연현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늘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고, 병들게 할 수도 없고,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부자로 만들 수도 없으며, 길흉화복을 줄 수도 없다. 사람들이 치세(治世)와 난세(亂世)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늘에 기대는 일 뿐이다. 치세든 난세든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늘과는 무관하다. 사람이 받게 되는 재앙과 복의 원인도 모두 자신에게 있을 뿐 불변의 질서를 갖고 있는 하늘에 있지 않다. (2018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지문)

- ① <보기>는 특정한 가설을 설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
- ② 위 글은 문제를 제기한 후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③ <보기>는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④ 위 글과 <보기> 모두 상반된 입장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하여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위 글과 <보기> 모두 기존의 관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고 그 관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계남고등학교 (경기)

4. 다음은 위 글의 작가 '박지원'을 인터뷰한 것이다. ㉠에 들어갈 대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자 : 청나라 사신단으로 열하(熱河)까지 갔을 때 쓴 일기를 잘 보았습니다. 7월 8일 일기에서 요동 별판을 보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으로구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지원 : 장관(壯觀)을 보면 감탄하여 눈물이 나기 마련이지요.
- 기자 : 드넓은 요동별판을 보고 감탄하였다면 기쁘고 즐거워야하는데, 왜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까? 눈물은 슬플 때 나는 것 아닙니까?
- 박지원 : _____ ㉠ _____
- 기자 :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신 거였군요.

- ① 이 세상에 태어난 분노와 한이 가슴에 꼭 찬 듯하여 통곡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네.
- ② 요동의 광활한 별판을 보니 우리 조선에는 그런 넓은 땅이 없는 것이 슬퍼서 눈물이 날 만하네.
- ③ 천고의 영웅들과 미인들이 이곳에서 흘렸을 눈물을 생각하니 그들의 삶이 안타까워 눈물이 날 것 같았네.
- ④ 이런 넓은 별판을 본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터이니, 세월의 무상함이 아쉬워 눈물이 날 만하네.
- ⑤ 인간의 칠정(七情)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것이네. 나는 새롭고 발전된 청나라로 들어선 것이 감격스러워서 통곡하고 싶었던 것이네.

계남고등학교 (경기)

5.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요동 벌판을 보고 느낀 기쁨을 갓난아이가 넓은 세상에 나와 기뻐 우는 것에 참신하게 비유하고 있다.

ㄴ. '갓난아이'를 원관념, '글쓴이'를 보조 관념으로 제시하였다.

ㄷ. 글쓴이는 갓난아이의 울음이 희(喜), 락(樂)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ㄹ. 일반사람들이 갓난아이의 울음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슬퍼서 우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갓난아이의 본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ㄷ, ㄹ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계남고등학교 (경기)

6. 다음을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박지원(朴趾源) :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실학자, 정조 4년(1780)에 청나라에 다녀와서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 북학론을 주장하였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을 강조하였다.
- 북학파(北學派) : 조선 영조·정조 때에 북학을 주장한 실학의 한파. 청나라의 앞선 문물제도 및 생활 양식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학파로, 특히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에 관심을 쏟았다.
- <열하일기(熱河日記)> : 조선 정조 4년(1780)에 박지원이 지은 책.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과 서양의 새로운 학문을 소개하였다.

- ① 당시 일반 사람들의 어리숙한 인식 수준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군.
- ② 상공업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을 경계하고 있군.
- ③ 북학(北學)을 실현하기 어려운 부조리한 조선 사회를 비난하며 새로운 이상향을 찾고 있군.
- ④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여 조선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군.
- ⑤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중국을 무작정 추종하는 것으로 보아 박지원의 봉건적 사상을 알 수 있군.

②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7월 초8일 갑신일. 맑다.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三流河)를 건너 냉정(冷井)에서 조반을 먹었다. 십여 리를 가다가 산기슭 하나를 돌아 나가니 태복(泰卜)이란 농이 국궁(鞠躬)을 하고는 말 머리로 쫓아와서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A)“백탑(白塔)이 현신하였기에, 이에 아뢰나이다.”

한다. 태복은 정 진사의 마두이다.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이 보이지 않기에 말을 급히 몰아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안광이 어질어질하더니 홀연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내리락한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했더니 정 진사가,

(나)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는 별안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그렇긴 하나, 글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 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七情)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 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 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 만한 결세.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통곡 소리는 천지간에 우레와 같아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 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그리하여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 대지.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져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한나라 때 가의(賈誼)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뎌 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宣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

1-(1) 첫사랑

1.⑤ 2.③ 3.③ 4. 첫사랑을 이룸. 5.③ 6.⑤ 7.④ 8.①
 9.④ 10.② 11.역설(모순), 아름다운 상처 12.③ 13.③
 14.③ 15.①④ 16.③ 17.③ 18.④ 19.⑤ 20.③ 21.④
 22.① 23.① 24.⑤ 25.④ 26.① 27.③ 28.④ 29.② 30.
 ⑤ 31.④ 32.(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
 린다 (2) 역설법 33.⑤ 34.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
 를 발견하고 있다. 35. 2연,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와 같은 유사한 단어의 반복,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과 같은 음성 상징어의 사용, '-겠지'라는 어미
 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6.⑤ 37.③
 38.⑤ 39.⑤ 40.③ 41.㉠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순수
 한 마음 ㉡ 첫사랑을 겪고 난 후에 도달한 정신적
 성숙 42.③ 43.③ 44.④ 45.⑤

1-(1) 이화에 월백하고 / 귀뚜라미

1.②⑤ 2.④ 3.⑤ 4.④ 5.③ 6.(나)는 자유로운 내재율
 에 의해 운율이 형성되지만 (가)는 3장 형태의 4음보
 라는 규칙적인 외형률로 운율이 형성됨 7.③ 8.① 9.
 ④ 10.④ 11.객관적 상관물인 자규로 인해 봄밥의 애
 상적인 화자의 정서가 심화됨. 12.④ 13.이화, 월백
 14.⑤ 15.① 16.① 17.②④ 18.④⑤ 19.② 20.㉠: 차가
 운 바닥 ㉡: 높은 가지 21.② 22.⑤ 23.④ 24.② 25.②
 26.①② 27.② 28.초장을 보면 3-4조로 반복되고 4음
 보이기 때문에

1-(2) 봄·봄

1.⑤ 2.④ 3.② 4.③ 5.감투 6.감투를 주지 않아서 /
 빌려쓰던 땅을 빼앗아 가서 7.⑤ 8.① 9.특징: 역순행
 적 구성 / 효과: 장인과 나의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
 았음을 암시 10.차이: [A]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만
 <보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 효과: 객관적으
 로 상황을 전달한다. 11.④ 12.① 13.② 14.⑤ 15.⑤
 16.② 17.① 18.계절적 배경을 나타냄 / 청춘 남녀의
 풋풋한 사랑과 서정적 분위기 자아냄 / 나와 장인의
 갈등이 풀릴 수 없는 현실의 순환을 나타냄. 19.②
 20.① 21.㉠가생이 ㉡들입다 ㉢툭툭하다 ㉣채시니 없
 이 들까불다 ㉤약장 ㉥역성 22.② 23.④ 24.② 25.①
 26.⑤ 27.⑤ 28.④ 29.(1)윗글은 역순행적 구성이고.
 <보기>는 순행적 구성이다. / 윗글은 대화와 행동으
 로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냈고, <보기>는 사건의 배
 경과 결말을 요약적으로 보여주었다. (2)바다 30.④
 31.② 32.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모순을 냉철하고 논리적
 으로 비판할 수 있는 지적수준이 떨어진다. 33.⑤ 34.
 ② 35.④ 36.(1)㉠-㉡-㉢-㉣-㉤-㉥-㉦-㉧-㉨-㉩-㉪-㉫-㉬ (2)'나'와
 장인의 우스꽝스런 싸움을 극대화시켜 작품의 긴장
 감을 살리고 해학성을 부각한다. 독자가 앞뒤 사건의
 관계를 추측하며 읽는 재미가 있다. 사전 예상이나
 사후 확인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
 다.

1-(3)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1.③ 2.① 3.⑤ 4.⑤ 5.⑤ 6.④ 7.③ 8.㉠ 백담이 곧 보
 인다 ㉡ 의인화 ㉢ 주객전도 ㉣ 태복 9.⑤ 10.③ 11.
 ① 12.⑤ 13.④ 14.① 15.④ 16.① 17.④ 18.③ 19.③
 20.즐거움, 기쁨 21. (C): 좁은 조선 (D): 요동 별판(중
 국, 청나라) 22.③ 23.⑤ 24.진정한 울음은 지극한 상
 황을 겪어야 나올 수 있다. 25.캄캄하고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곳으로 나와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 26.
 ② 27.⑤ 28.① 29.① 30.③

1-(3) 지갑

1.⑤ 2.④ 3.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함. 4.②

1-(3) 눈물은 왜 짠가

1.③ 2.④ 3.이 작품에서는 각 문장을 '-습니다'라는
 어미로 끝맺고 의도적으로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음
 으로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4.① 5.설의법

2-(1) 답화 상황에서의 점검과 조정

1.⑤ 2.③ 3.② 4.⑤ 5.④

2-(1) 읽기와 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1.③ 2.⑤ 3.③ 4.① 5.③ 6.④⑤ 7.① 8.① 9.⑤ 10.④
 11.서양 추상 미술 작품의 특징을 설명함.

3-(1) 음운 변동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꼬], 선릉역[설
 룡녁], 갔는데[간는데],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켄따]
 8. ⑤ 9.① 10.④ 11.② 12.㉠ [달근] ㉡ [다가페] 13.
 ② 14.③ 15.③ 16.④ 17.② 18.② 19.말의 뜻을 구별
 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②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
 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
 개음인 'ㅌ',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